

5가지 키워드로 본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

2020.12.23

정나라 선임연구원

CONTENTS

I. 서론

II. 투자와 미래에 관한 5가지 키워드

1. 부의 축적
 2. 세대 내 격차
 3. 내집마련
 4. 노후준비
 5. 해외투자
-

III. 결론

< 요약 >

- 자산시장에서 밀레니얼 세대 투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는 밀레니얼 세대의 경제 및 미래관(觀)을 파악하고 이러한 배경이 투자행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베이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전국의 밀레니얼 세대(만 25~39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

- 서베이 결과로 파악해본 밀레니얼 세대의 경제 및 미래관의 특징은 ‘부의 축적·세대 내 격차·내집마련·노후준비·해외투자’라는 5가지 키워드를 통해 정리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부의 축적] 밀레니얼 10명 중 7명(68.0%)은 과거에 비해 앞으로는 경제성장과 자산 축적이 어려울 것으로 봄.
- [세대 내 격차] 고소득 밀레니얼(월소득 5백만원 이상) 중 50.8%가 ‘부모 세대보다 많은 부를 쌓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저소득 밀레니얼(월소득 2백만원 미만)은 이 비율이 16.7%에 그침.
- [내집마련] 밀레니얼 세대 상당수(70.6%)는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7명(73%)은 ‘젊은 층이 자신의 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느낌.
- [노후준비]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9명(86.6%)은 ‘노후준비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노후준비에 부담을 느낌. 이와 관련하여 주요 노후준비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연령층일수록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 [해외투자] 밀레니얼 3명 중 1명(31.7%)은 해외투자에 관심이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보유자산이 클수록 더 적극적 태도를 보임.

- 서베이 분석 결과를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1) 밀레니얼 세대는 앞으로 자산축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세대 내에서도 자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전망에 차이가 나타나는 양극화 경향이 보임.
- 2) 내집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3) 노후준비는 국가와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 4) 기존 세대에 비해 투자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을 가진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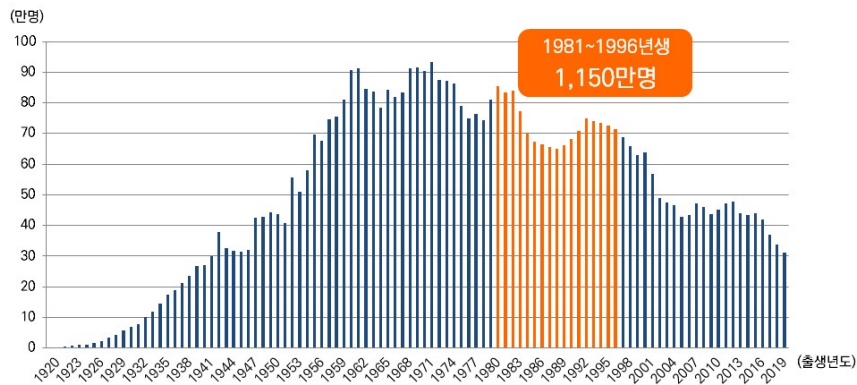
I. 서론

● 밀레니얼 세대는 대한민국 인구 중 22.2%를 차지하는 인구집단으로,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비·생산·투자의 주축이 되는 세대로 부상함.

－ 밀레니얼 세대의 구분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본 보고서는 미국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정의를 따름.

※ 퓨 리서치센터 세대구분: △사일런트세대(~1945년생) △베이비붐세대(1946~1964년생) △X세대(1965~1980년생)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생) △Z세대(1997년생~)

<도표 1> 우리나라의 출생년도별 인구수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9)

●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 활황으로 ‘동학·서학개미’의 등장에 이어 ‘빚투’,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등 밀레니얼을 포함한 청년층의 투자행태가 주요 이슈로 떠오름.

－ 코로나 19 이후 로빈후드(美), 청년부추(中), 닌자개미(日) 등 밀레니얼 개인투자자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가 생겨나며 전 세계적으로 주식투자 붐이 지속되고 있음.

－ 동학개미: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 후 주식투자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를 의미하며,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동학개미에 빗대 ‘서학개미’로도 지칭함.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주식활동계좌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 늘었고 이 중 20~30대의 투자비중이 50%를 넘어섬.

－ 빚투: 빚을 내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함. 최근 증권사의 신용거래용자가 급속히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일부 증권사는 예탁담보대출 및 신용융자 대출을 중단했으며, 총 융자액은 18조 7035억원을 넘어섬.(금융투자협회, 2020년 12월 기준)

-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를 줄인 말로, 원래 급여를 계산할 때 각종 소규모 수당까지 끌어모아 합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할 때 신용대출 등 조달 가능한 모든 재원을 끌어모으는 행동을 말할 때에도 쓰이고 있음.

◎ 밀레니얼 세대가 앞다투어 투자에 나선 데에는 코로나19 위기를 투자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동시에 저금리 환경 및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박탈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미국 세인트루이스 중앙은행은 밀레니얼 세대를 두고 ‘재무적 성장을 잃어버린 세대 (Financially Lost Generation)’가 될 위험이 크다고 말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타남.
- 2020년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2019.10)에서 0.75%(※현재 0.5%(2020.5~))로 인하하면서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시대가 열림. 또한 2020년 1월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1216만원으로 최초로 9억을 돌파하면서 청년들의 주택구입 여력이 위축되고 있음.

◎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어떠한 경제 및 미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투자행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함.

- 5가지 키워드는 ‘부의 축적 · 세대 내 격차 · 내집마련 · 노후준비 · 해외투자’임.

〈밀레니얼 세대의 경제인식 서베이〉

- 조사업체: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주)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전국 만 25~39세 남녀 700명
- 조사기간: 2020년 5월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

II. 투자와 미래에 관한 5가지 키워드

- 서베이에서 나타난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에 관한 생각은 ‘1) 부의 축적, 2) 세대 내 격차, 3) 내집마련, 4) 노후준비, 5) 해외투자’라는 5가지 생각으로 분석·정리해 볼 수 있음.

– ‘부의 축적, 세대 내 격차’에는 사회와 본인의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으며, ‘내집마련, 노후준비’는 밀레니얼 세대의 2大 재무목표임. 또한 ‘해외투자’는 밀레니얼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 돌파구로 해석할 수 있음.

1. 부의 축적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7명은 앞으로 경제성장과 자산축적이 과거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응답자의 보유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회의적 전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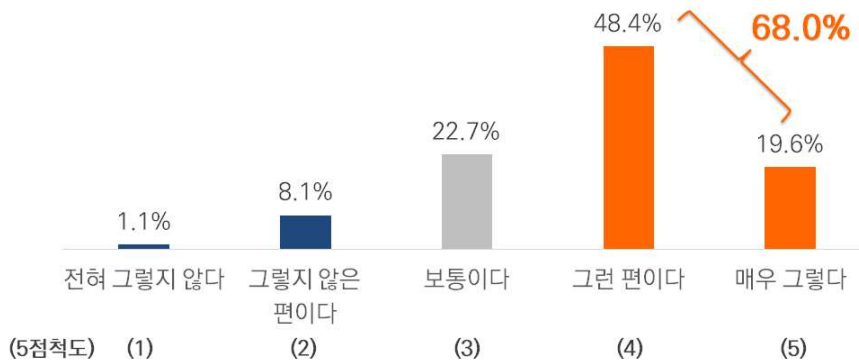
-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7명(68.0%)은 ‘미래 사회에는 과거보다 경제성장과 자산 축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밀레니얼 세대 700명에게 과거에 비해 미래 사회는 경제성장률이 낮고 개인의 자산축적이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 중 48.4%가 ‘그런 편이다’, 19.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

–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1%,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8.1%에 그침.

<도표 2> Q. 미래에는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과 자산축적이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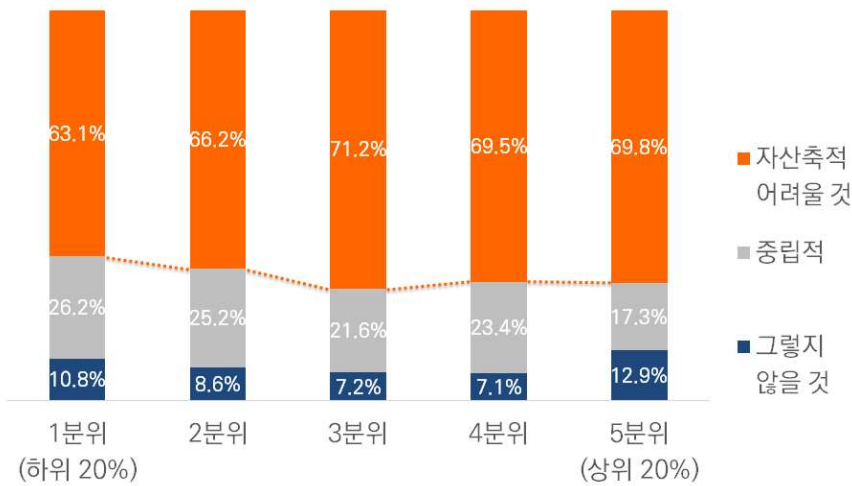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n=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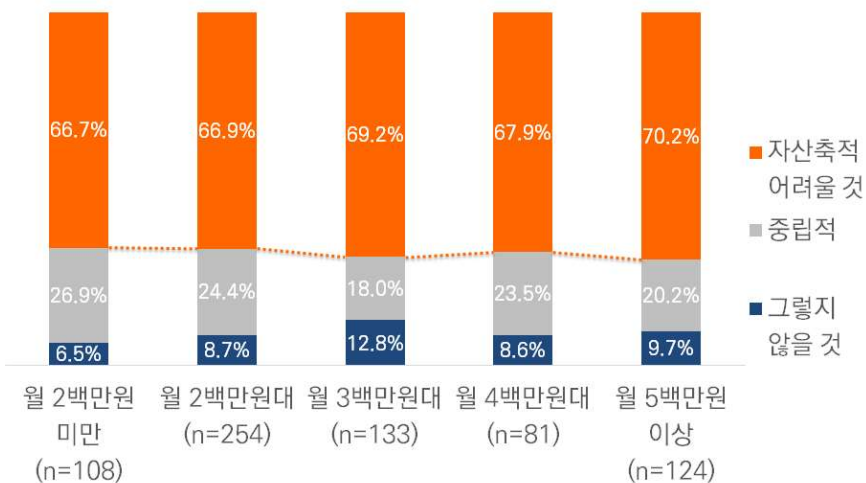
◎ 응답자의 보유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회의적 전망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우리 사회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인식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임.

- 응답자의 총자산 규모에 따라 집단을 5분위로 나누어 부정적 응답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부정적 응답 비율은 분위에 따라 63.1~71.2% 수준으로 대체로 과반 이상임.
- 월소득 구간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집단별 부정적 응답 비율은 66.7~70.2%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도표 3> Q. 미래에는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과 자산축적이 어려울 것이다(집단별)
<총자산 규모별>



<월소득 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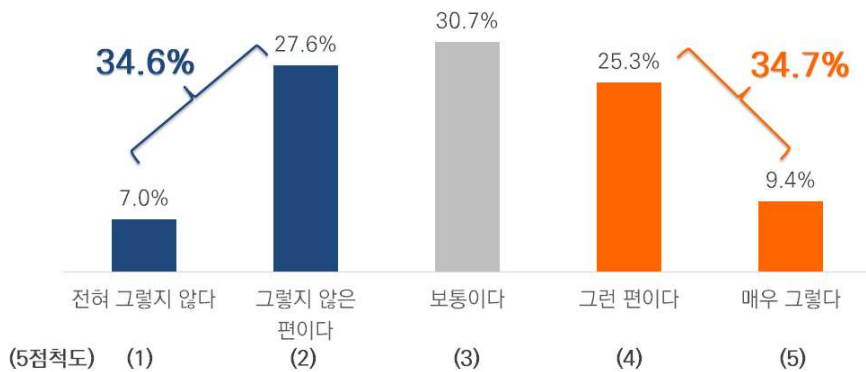
2. 세대 내 격차

‘나는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부를 쌓을 것’이라는 기대는 응답자의 월소득·자산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사회적 저성장에 대한 인식과 달리 개인별 부의 축적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세대 내 격차가 컸음.

◎ 밀레니얼 3명 중 1명은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부를 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3명 중 1명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의견이 갈림.

- 응답자 중 부모 세대보다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7%임. (‘그런 편이다’ 25.3%, ‘매우 그렇다’ 9.4%)
- 반면 부모세대보다 부를 쌓기 어렵다고 생각한 응답자도 34.6%(‘그렇지 않은 편이다’ 27.6%, ‘전혀 그렇지 않다’ 7.0%)로 긍정적 응답과 거의 유사한 비중을 차지함.

<도표 4> Q. 나는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응답자(n=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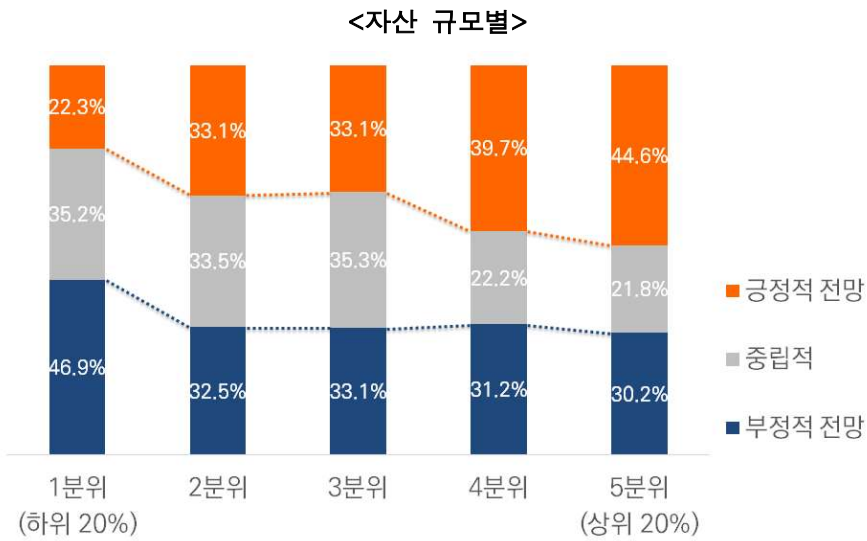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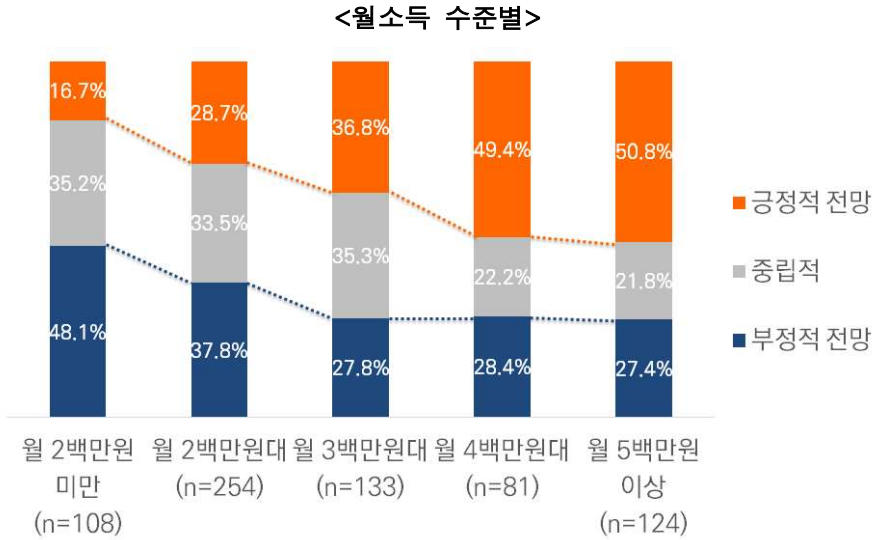


◎ 부의 축적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월소득과 자산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월소득이 5백만원 이상(50.8%)인 경우 2백만원 이하(16.7%)인 경우에 비해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월소득구간별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월 2백만원 미만 16.7% < 월 2백만원대 28.7% < 월 3백만원대 36.8% < 월 4백만원대 49.4% < 월 5백만원 이상 50.8%’ 순임.
- 자산분위별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1분위 22.3% < 2분위 33.1% = 3분위 33.1% < 4분위 39.7% < 5분위 44.6%’로, 소득과 마찬가지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부의 축적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남.

- 다만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 보유자산이 가장 큰 집단에서도 부정적 전망의 비중이 각각 27.4%, 30.2%로 낮지 않은 수치를 보였음.

<도표 5> Q. 나는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집단별)



3. 내집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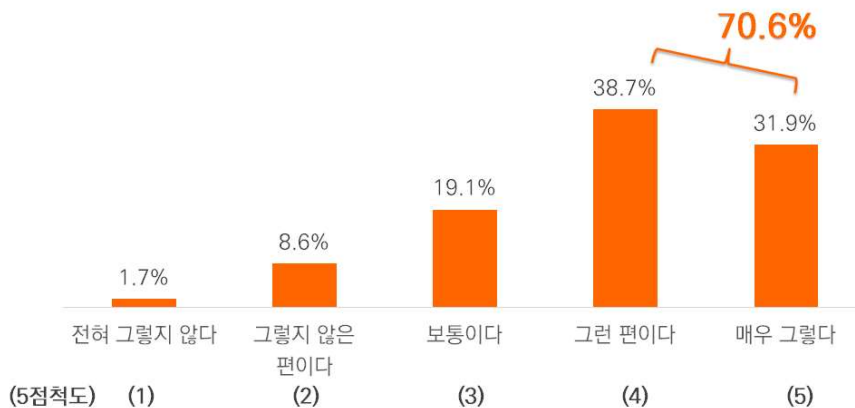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7명은 주택구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밀레니얼 중 대다수(79.8%)가 '젊은 층이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기혼 밀레니얼 가구 중 절반은 부모에게 결혼 및 독립자금을 지원받음.

◎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7명(70.6%)는 내집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산 규모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가 크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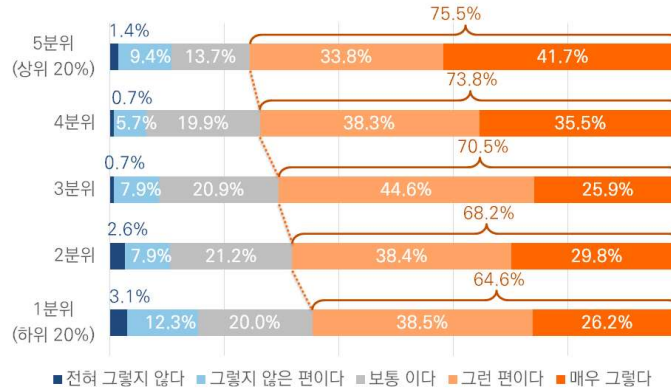
- 내집마련이 꼭 필요한지 물었을 때 응답자 중 31.9%가 '매우 그렇다', 38.7%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음.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7%,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8.6%에 그쳤음.
- 보유자산(총자산) 규모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보유자산 규모가 클수록 필요성을 비교적 더 크게 느끼며 실제 보유율도 높았음.
 - 내집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분위 64.6% < 2분위 68.2% < 3분위 70.5% < 4분위 73.8% < 5분위 75.5%' 순임.
 - 자가 거주 비율은 '1분위 0.8% < 2분위 18.5% < 3분위 27.3% < 4분위 52.5% < 5분위 69.8%' 순임.

<도표 7> Q. 내집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응답자(n=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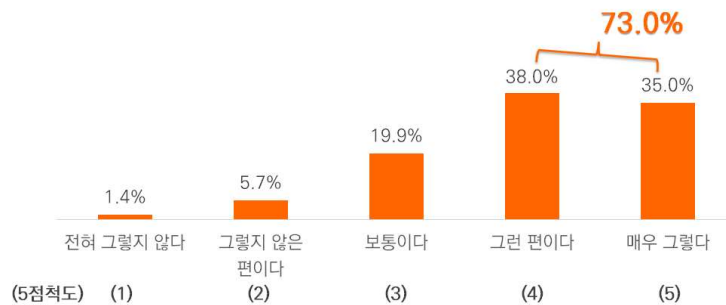
<자산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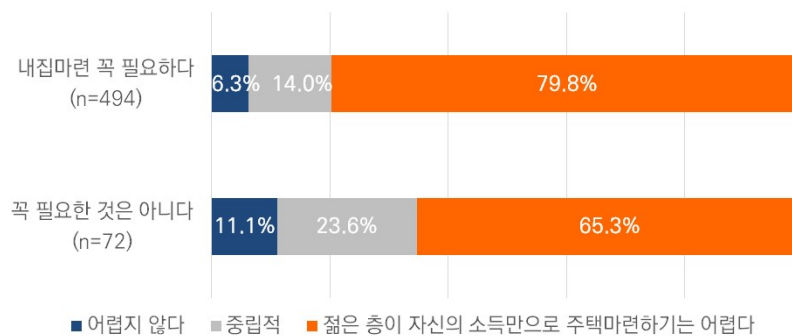
◎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8명이 '젊은 층이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며, 기혼 밀레니얼 가구 중 절반 가량(52.0%)은 부모에게 결혼 및 독립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밀레니얼 중 73.0%는 '젊은 층이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느끼며,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79.8%가 이에 동의함.
- 부모로부터 결혼·독립자금을 지원받은 비율: 기혼(248명) 52.0%, 비혼(452명) 21.9%

<도표 8> Q. 젊은 세대가 자신의 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전체 응답자(n=700)>



<내집마련 필요성에 대한 생각별>



4. 노후준비

밀레니얼 세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10명 중 9명이 그렇다고 응답)고 생각하였음. 이와 관련해 노후의 주요 소득원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연령층일수록 회의적 태도를 보임.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밀레니얼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져 30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주택구입을 제치고 재무목표 1위를 차지함.

－ <밀레니얼 연령대별 재무목표 변화>

만 25~29세: 1위 주택구입(32.4%), 2위 결혼자금(22.3%)

만 30~34세: 1위 주택구입(33.2%), 2위 노후준비(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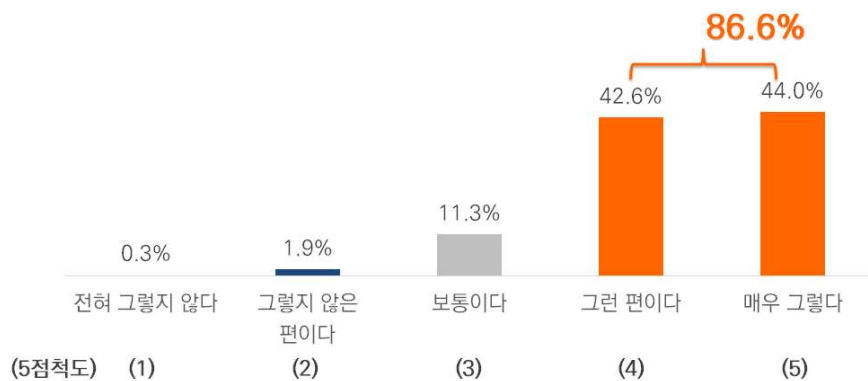
만 35~39세: 1위 노후준비(31.9%), 2위 주택구입(27.9%)

－ 30대 후반 밀레니얼의 경우 그보다 어린 세대에 비해 결혼, 주택구입 등 주요 재무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가 많아, 다음 단계 목표인 노후준비로 관심사가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밀레니얼 세대에게 노후준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노후를 국가나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임.

－ 노후생활에 대해 국가나 사회, 가족의 지원 없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 중 44.0%가 ‘매우 그렇다’, 42.6%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 ‘전혀 그렇지 않다’는 0.3%에 그침.

<도표 9> Q.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응답자(n=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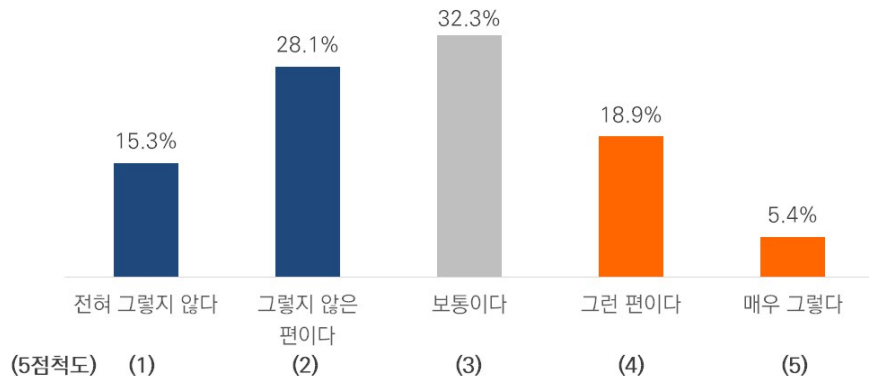
◎ 노후의 주요 소득원인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4명(43.4%)은 ‘국민 연금이 자신의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응답자 4명 중 1명(24.3%)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 중 15.3%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28.1%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함. 반면 ‘그런 편이다’는 18.9%, ‘매우 그렇다’는 5.4%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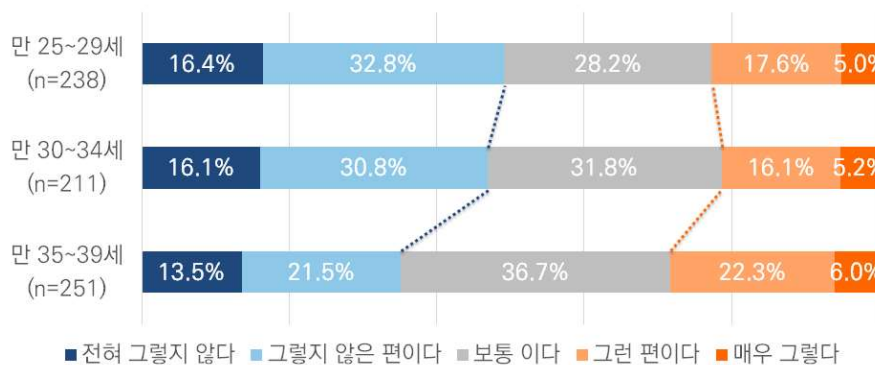
– 밀레니얼 세대 내에서도 연령이 높은 집단(만 35~39세)에서는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회의적 인식이 크게 나타남.

- 긍정적 응답 비율 : 만 25~29세 22.6%, 만 30~34세 21.3%, 만 35~39세 28.3%
- 부정적 응답 비율 : 만 25~29세 49.2%, 만 30~34세 46.9%, 만 35~39세 35.0%

<도표 10> Q. 나의 노후에 국민연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응답자(n=700)>



<연령대별>



5. 해외투자

밀레니얼 세대 3명 중 1명은 해외투자를 고려해 본 적 있거나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음. 세대 내에서도 차이를 보여 나이가 어리고 자산규모가 클수록 해외투자에 적극적임.

◎ 밀레니얼 3명 중 1명(31.7%)은 해외투자를 고려해 본 적 있거나, 실제로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 세대에 비해 투자에 대해 개방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성향이 해외투자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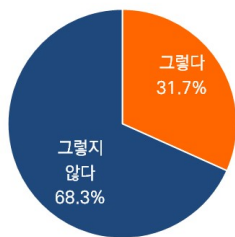
◎ 세부적으로는 밀레니얼 내에서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산규모가 클수록 해외투자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연령대별:** 해외투자 고려·경험 비율은 ‘만 25~29세 34.9% > 만 30~34세 33.2% > 만 35~39세 27.5%’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비율이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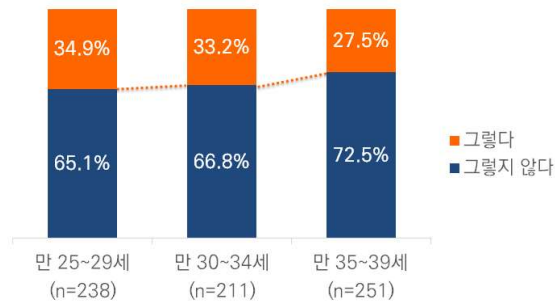
– **자산규모별:** 1분위(하위 20%)의 경우 23.8%가 해외투자를 고려해 보았거나 실제 투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장 자산규모가 큰 자산 5분위(상위 20%)의 경우 이 비율이 두 배에 가까운 46.0%에 달했음.

<도표 11> Q. 나는 해외투자를 고려해 본 적이 있거나, 실제로 투자한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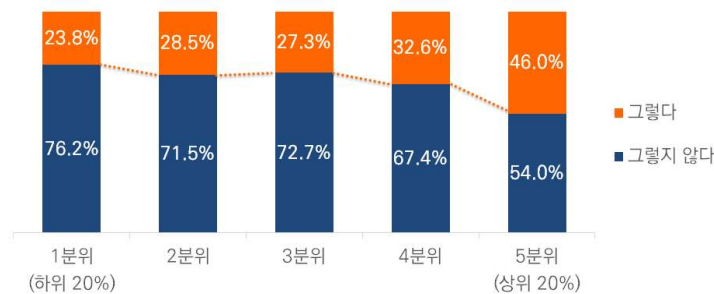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n=700)>



<연령대별>



<자산 분위별>



III. 결론

- ◎ 서베이 결과에서 나타난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 및 미래관의 특징은 ‘부의 축적 · 세대 내 격차 · 내집마련 · 노후준비 · 해외투자’라는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와 미래 키워드 5가지

부의 축적

밀레니얼 10명 중 7명(68.0%)은 미래에는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과 자산축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세대 내 격차

고소득 밀레니얼(월소득 5백만원 이상) 중 50.8%가 ‘부모 세대보다 많은 부를 쌓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저소득(월소득 2백만원 미만)은 이 비율이 16.7%에 그침

내집마련

밀레니얼 10명 중 7명(70.6%)은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젊은 층이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음

노후준비

밀레니얼 10명 중 9명(86.6%)은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10명 중 4명(43.4%)이 국민연금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함

해외투자

밀레니얼 3명 중 1명(31.7%)은 해외투자에 관심이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보유자산이 클수록 더 적극적 태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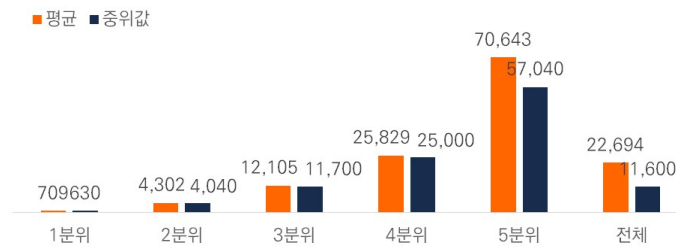
- 1) 밀레니얼 세대는 앞으로 자산축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세대 내에서도 자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전망에 차이가 나타나는 양극화 경향이 보임
- 2) 내집마련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자신의 소득으로 이를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함
- 3) 노후준비를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 4) 기성 세대에 비해 투자에 대해 개방적인 편으로 해외투자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첨부: 서베이 응답자 기초통계

◎ 연령 및 성별 응답자 수(명)

		연령			
		만 25~29세	만 30~34세	만 35~39세	합계
성별	남자	123	108	127	358
	여자	115	103	124	342
	합계	238	211	251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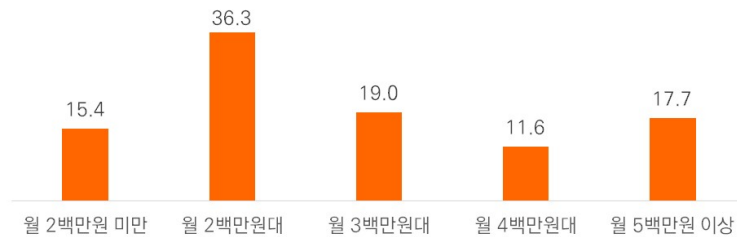
◎ 총자산 5분위별 자산 평균 및 중위값(만원)



◎ 연령 및 자가거주여부별 자산구성(명, 만원)

	연령별			자가여부별		전체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자가	非자가	
응답자 수	238	211	251	238	462	700
총자산	15,679	20,116	31,512	37,991	14,813	22,694
부동산	12,864	16,394	27,389	33,826	11,569	19,136
금융자산	2,815	3,722	4,123	4,165	3,244	3,557
부채	1,854	4,754	6,604	8,329	2,423	4,431
순자산	13,825	15,362	24,908	29,662	12,390	18,262

◎ 월소득 구간별 분포(%)



◎ 가족구성별(명, %)

	기혼			비혼(미혼, 이혼, 사별)			합계
	유자녀	무자녀	계	부모 동거	부모 비동거	계	
응답자 수	141	107	248	261	191	452	700
비율	20.1	15.3	35.4	37.3	27.3	64.6	100.0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자산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글로벌로 분산투자 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3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4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 [40] 초장수시대의 노후자산 운용, 2019.7
- [41]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 2019.8
- [42]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2019.10
- [43]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2019.11
- [44] 초저금리시대의 자산운용 5대 전략, 2019.11
- [45] 변액연금의 진화와 노후자산관리, 2019.12
- [46] 밀레니얼 세대, 新투자인류의 출현, 2020.7
- [47] 5060 세대의 의료비 지출 및 보험보장 실태, 2020.9
- [48]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분석 및 시사점, 2020.11
- [49] FAANG을 넘어 BBIG로, 2020.11
- [50] 저금리·장수시대의 도래와 美 연금시장의 대응, 2020.12

투자자산운용센터 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